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 ‘국가방제벨트’ 조성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벨트도식도

2030년까지 전국 800km 구축 예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주요 확산 경로에 ‘국가방제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최근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

해목이 약 177만 그루에 이르는 등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지난 1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했다. 국가방제벨트는 국가방제전략의 핵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약 800km의 국가방제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방제벨트 내에서는 지역별 피해 특성에 따라 숲가꾸기와 예방나무주사는 물론 수종전환 등 맞춤형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주도의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모니터링을 통해 방제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 적용성과 방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방제벨트는 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구축하는 방어선이다.”며, “체계적인 예찰과 집중방제로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북부지방산림청, 정밀 검경 시스템으로 숲 지키다

DNA 분석으로 정밀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관내 소나무·잣나무 숲의 건강을 유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검경(현미경 진단)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이동하는 1mm 안팎의 미세한 선충이 나무 내부에서 증식하며 수분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말려 죽이는 병해충이다.

눈으로는 일반 가뭄 피해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에서 시료(나무조각)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선충을 직접 확인하는 ‘검경(檢鏡)’ 과정이 정확한 방제의 첫 단추가 된다.

검경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에서 자동시료채취기를

이용해 시료(나무 조각)를 채취하고, 이를 물이 담긴 깔대기 장치에 넣어 선충을 분리한다. 이후 가라앉은 선충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꼬리 모양, 생식기 등 소나무재선충의 고유한 신체 특징을 판별해 최종 진단을 내린다.

특히 형태가 모호해 현미경만으로 구별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 ‘DNA 유전자 분석(PCR) 기술’을 병행하고 있다. 나무에서 추출한 선충의 유전자를 증폭시켜 변별하는 방식으로, 선충을 시료에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검경 시간 단축 등 검경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정확하게 진단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경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중한 소나무 숲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검경(현미경 진단)시스템 가동

해외 목재제품 생산공장 점검… 품질 신뢰 높인다

중국·베트남 현지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 점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목재제품의 해외 위탁 생산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중국과 베트남의 현지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목재제품의 해외 위탁

생산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 확대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산업표준 인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기업의 품질경영 체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한국산업

표준 인증 심사·점검반을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지 공장을 방문했다. 4월에는 중국의 구조용 집성재 생산기업, 9월에는 베트남의 치장 목질 마루판 생산기업 등 한국산업표준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 2곳을 심사·점검했다.

점검반은 관련 규정인 ‘KS Q 8001’에 따라 기업의 품질경영 현황과 자재의 적정성, 가공·제조 설비의 제품 생산 가능 여부 등 현장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부적합 사항은 해당 기업이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한국산업표준 인증 심사원의 검토·확인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앞으로도 해외 생산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인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베트남의 현지 생산공장 방문

산림청,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시상식 개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도시숲으로 열다’ 주제로 67개 작품 경합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림스마트위크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8회

를 맞이한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은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숲의 새로운 가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모전이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조경신문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도시숲으로 열다’를 주제로 사람과 자연, 도시를 연결하는 참신한 도시숲 모델을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공모대상지는 지방정부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 용산구, 경기도 의정부시, 충남 당진시, 울산 울주군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 등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67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대학교 7개팀이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제1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시상식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벌목작업 사고 예방 특별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한사업안전협회에서 사업 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숲가꾸기 및 재선충방제사업 시 벌목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담당자와 근로자 등 60

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벌목작업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응급처치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벌목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